'미래형 운송기기 중심 전남' 속도 붙는다

여수·고흥 '드론 실증도시' 선정
물품배송·사회안전망 구축 연구
차세대 드론산업 전진기지 육성

여수와 고흥이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돼 전남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지 도약 목표에 탄력이 붙게됐다.

전남도는 1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여수시와 고흥군이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 물품 배송·사회안전망 구축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안하면 산업용 드론 육성과 활용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 연구·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시는 국비 11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해양드론기술, ㈜무지개연구소, ㈜스카이포츠-K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수 화정면 개도리 등 일원에 '드론배송경로(섬-섬-섬-육지) 실증', '드론 배송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전남테크노파크, ㈜대한항공, 마린로보틱스㈜, 피앤유드론, ㈜전풍, ㈜날다 등 7개 기업·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고흥군은 국비 14억원을 확보했다.

고흥 도양읍 봉암리 등 일원에 '드론 활용 사회안전망시스템 실증', '긴급 의료 물품 배송 실증', '현장밀착형 생활 안전 모니터링 실증', '인공지능(AI) 기반 유해조수 퇴치 실증'에 나선다.

전남도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드론 분야 실증·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 창출과 상용화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참여 기업에 전남에 구축된 드론 기반시설을 제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드론 특화산단 입주기업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 전남을 차세대 드론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정된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테스트베드'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이어 올해 드론 실증도시까지 선정되면서 블루이코노미 핵심과제인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 전남' 실현에 한층 속도가 붙게됐다.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랜드챌린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46억원이 투입되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는 오는 2023년까지 8억원이 지원된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기업 우수 기술과 드론 모델 실용화·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비행체 산업을 선도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용역보고회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설계용역 보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지속가능 사회적경제 생태계 박차

132억 투입 26개 사업 추진
자원 발굴·판로 확대 주력

광주시가 올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19일 "민관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32억원(국비 83억원, 시비 49억원)을 투입해 ▲협치와 연대경제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과 자원발굴 ▲판로 확대와 사회적 소비 활성화 ▲홍보 및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등 6대 전략,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과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 교육·컨설팅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인증, 홍보마케팅 등 14개 사업에 99억7,900만원을 투입한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판로개척과 사회적경제 인지도 확산을 위해 공공구매 공시제 및 판로지원단 운영, 온·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홍보체험단 운영, '제2회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 10개 사업에 4억 4,9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포장재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공약사업인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매년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사회적경제 대학원 과정(석사) 수업료를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정책만족도, 정책수요 등을 전수조사해 미래 지속가능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도 순조롭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80억원 규모의 광주역 창업벡트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된다. 사회적경제의 창업·연구개발(R&D)·교육·네트워킹·혁신 등을 통합지원하는 거점공간이다. 혁신타운은 4월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말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는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맞춰 준비기획단과 민관협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들 조직은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간 배치, 장비 구축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기획, 운영체계 구축 등을 담당한다.

/길용현 기자

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기업 모집

전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 성장 촉진을 위해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고도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설장비와 고도화 분야로 나눠 총 15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오는 28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설장비 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100개사를 선정해 신규 시설, 장비 구입 등에 총 사업비 13억3,300만원을 5회에 걸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고도화 분야는 재정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1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정근산 기자

"전남 선박항 옥외소화전 설치 의무화"

윤명희 도의원, 사전예방 촉구

지방어항과 항만시설물 등 전남지역 선박항에 옥외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최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선박항(지방어항·항만시설물)의 옥외소화전 설치 의무화와 전남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선박항은 어항시설물과 항만시설물로 구분하며 전남에는 지방어항 93개, 항만시설물 15개가 있다. 이중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지방어항은 9개, 항만시설물은 6개로 전체 108개 선박항 개수 대비 설치현황이 13.8%에 그치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선박항 내 밀집 정박돼 있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 나란히 정박해있던 어선들에까지 불이 번져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박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현실임에도 불구, 실질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남도는 선박 화재에 대비해 관내 어항 및 항만시설물에 옥외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박 화재 초기대응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어민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지역 공헌도 높은 2금융권 활용을"

박문옥 도의원, 상생방안 주문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제2금융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최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전남에는 본점기준 44개 신협, 185개의 상호금융기관, 4개의 상호저축은행, 55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목포 소재 1개 금융기관의 경우 지난 12년간 약 8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의 2금융권들이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이들 금융기관을 지원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조금만 변경하면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전남도의 보조단체 자금 이체는 총 1,600건으로 이중 5,000만원 이하 이체건수가 1,176건에 달하지만 2금융권(단위농협 제외) 이체는 69건에 불과했다"며 "2금융권도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똑같이 보장받고 있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동안 2금융권을 외면했다면, 이제라도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2금융권에 대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회공헌사업은 지역민과 함께 상생해야 할 기업의 최소한의 덕목이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도민이 나서서 응원해 줘야한다"며 "도민을 위해 많은 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해 소규모 단체 보조금이라도 예치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